

하박국 강해⑥ “명쾌한 해답 2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8절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 그는 숨을 죽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물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은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복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예고된 분량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적인 것을 포기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비교하여 의롭지 못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접근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람의 최후가 아니라, 의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법칙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 “공의”와 “사랑”

지난주에 우리는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주신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의인이 나와서 사는 자가 생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갈대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 갈대아 민족이 얼마나 포악하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그런 민족”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갈대아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20여 년 전 IMF 때나 전 세계에 불어 닥쳤던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만을 본다면,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인류의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회복되는 자연, 깨끗한 공기, 조금은 한가한 일상, 가족들끼리의 모임 등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강제로 멈춘 일상을 통해 회복되는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경제적 활동이 잠시 중단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멀어진 관계와 그로인해 소원해졌던 일상이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이단의 불의한 모습, 조금은 이기적인 신앙인들의 모습, 동성연애자들의 부도덕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했던 과학의 진보가 이렇게 무기력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적나라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쉽게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 그리고 심판의 도구인 갈대아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없는 법칙에 살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못된 대로 모든 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살길, “믿음으로” 살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살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때, 대학원 논문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지도할 때 대개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 과정을 저와 의논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초고 마감을 한 주 남겨놓은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태에서는 논문을 쓸 수 없었고, 저는 지도 교수로서 책임 질 수 없으니 준비가 되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찾아왔던 학생이 손에 두툼한 종이를 들고 들어온 것으로 보아, 혼은 나겠지만 잘 이야기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졸업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성실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기준에 맞는 과제를 하는 것과 더불어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를 찾아왔을 때, 그 학생은 적절한 변명을 하고 적당한 꾸지람을 들으면 충분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라고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쯤해서 제가 그렇게 나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변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의 요구는 불성실한 학생이 곤욕을 치르도록 하려는 복수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왕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학생은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허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이유가 있으면 받아야 하는 질책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잘못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징벌이 있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지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네가 불평하는가, 부정직하다고 불평하는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정말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살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살길을 남겨놓기 위함 이라는 것이지요.

소망은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12절의 선언을 보면 소망이, 소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역설적인 복음의 원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의인은 소망으로 산다 → 그런데 의인은 없다 →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한계로 ‘절망’ →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소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의인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본질적 절망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 없는 죄인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면 의인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며 하박국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해 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며 확진자가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어느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 봐라!”하고 심히 조롱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입니까?

하박국처럼 충분히 항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풀고 싶지만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박국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망루에 올라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속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끊어진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상태에서는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본문 말씀 4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하박국 전체를 대변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3절을 보면 ‘심판의 날이 속히 온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신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맘에 들지 않겠지만 그들 역시 도구일 뿐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의 도구인 갈대아인의 마음이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곧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희들이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벌로 인해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날, 온 세상의 모든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 의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 의인으로 서기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 .

이제 우리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있게 예를 들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숨겨진 믿음, 뒤로 물러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 받고 순교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염없이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아서 들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리는 데도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동일한데,

믿음으로 산 결과는 우리가 바라거나 예측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들고,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실력이 없었을까? 모세에게 힘이 없었을까?

모세는 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 했을까?

저는 두 종류의 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슬그머니 물러나는 비겁한 포기

②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복된 일임을 알기에 당당하게 내려놓는 포기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실력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여, 거절 지수를 높여라!”

언젠가 크리스천 리더십 책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거절지수'라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지수야 말로 믿음과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치 없는 기도입니다. 이 책에서는 금식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믿음 없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지,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지 않으면 결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딪치는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쉽게 비난 하는데 우리들 역시 작은 유혹들에 수없이 넘어가며 살지 않나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다!”
믿음은 단순히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것이거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묻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르쳐주고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과 죽음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함은 사라집니다.

“결단”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은,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단”이란 선택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부서져서 강으로 흘러오다가 폭포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는 생명줄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생명줄이 던져진 순간에 북쪽 카다다 지류에서부터 굵은 통나무가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가는 생명줄을 잡았고, 한 사람은 굵은 통나무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지요.
생명줄은 아무리 가늘어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것입니다. 믿음이 선택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는 포기의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든든함을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